

# 張保臯의 淸海鎭 沒落에 관한 考察 - 新羅 下代 政治 構造와 관련하여 -

姜 祥 澤\*

A Study on Collapse of Chang Pogo(張保臯)'s Chunghaejin(淸海鎭)

Kang, Sang-Teak

Ⅰ. 머리말	Ⅳ. 張保臯의 淸海鎭 勢力과 金陽
Ⅱ. 新羅下代の 政治構造	Ⅴ. 淸海鎭의 沒落
Ⅲ. 骨品貴族의 實體와 私兵 組織	Ⅵ. 맺음말

## Ⅰ. 머리말

지금까지 張保臯에 대한 연구는 그의 해상무역과 관련하여 중국(당)과 일본을 통하여 해상활동을 통괄해 왔다는 사실을 밝히는데 주력해 왔다. 그것은 圓仁日記의 발굴과 라이샤워(Reischauer): 金庠基 선생에 의해 국제적 무역가 무역왕 등으로 표현되어지면서 집중적인 연구가 선행되었기 때문이다. 9세기 淸海鎭 設鎭 이후의 장보고의 활동은 단순한 貿易商이기 이전에 강력한 軍隊와 海上權을 가진 군인이며 정치가였다는 점에서 고

찰 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청해진의 몰락이 신라하대 정치구조와 어떻게 관련되어 나타나는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杜牧(중국唐代)의 樊川文集과 新唐書의 기록이 없었다면 東史綱目<sup>1)</sup>에 장보고를 김유신이나 을지문덕과 같이 높이 평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내의 유일한 사료인 「三國史記」 「三國遺事」는 지금까지 연구되어진 무역관계 기사보다 장보고의 政治活動에 관한 내용만을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정치관계의 기록이 納妃 문제로 反亂의 주모자가 되었고 끝내는 권력욕에 사로잡힌 叛逆者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대학 교수

이 論文은 1998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외국석학과의 공동연구”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安鼎福, 「東史綱目」 第4下 癸酉年 文武王 13 年條

이러한 역사적 기록은 근래에 들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지적되고 있다.<sup>2)</sup> 그러나 지금까지 이와 같은 공식적 기록이 가지는 부정적 평가 때문에 많은 국내 사학자들의 관심을 벗어나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장보고에 대한 새로운 평가는 9世紀 청해진 몰락과 관련한 신라하대 사회의 재조명을 통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下代라는 시대구분은 武烈系(太宗武烈王)의 마지막 왕인 惠恭王代에 골품귀족 96 각간의 반란을 통해 奈勿系의 宣德王이 즉위하면서 시작되는 132년간(혜공왕 765 - 진성왕 816) 23회에 걸쳐 왕위 쟁탈전이 발생하고 있었던 시기를 말한다.

이 시기는 장보고의 청해진 設鎮(826) 이후 興德王(42대), 僖康王(43대), 閔哀王(44대), 神武王(45대), 文聖王(46대) 이후 정치적으로 가장 혼란한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에 청해진을 근거지로 활동하였던 장보고와 신라 중앙정치권과의 관련을 재확인하여 과연 장보고가 남겨두었던 역사적 내용이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의 기록과 어떻게 다른 것인가 밝혀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本稿에서는 신라 하대의 정치구조와 장보고와의 관련을 확인할 것이다. 이는 「三國史記」의 기록과 「三國遺事」가 가지는 기록의 차이와, 골품귀족의 실태, 그리고 그들의 권력구조가 어떤 양상으로 형성되는가를 밝혀 볼 것이다.

下代 골품귀족의 권력 구조는 私兵이라는 군사조직의 운영이었으며 장보고의 청해진 세력도 역시 私兵조직이라는 측면에서 이해 되어야한다. 이는 신라 하대 구조가 私兵組織을 중심으로 왕위쟁

탈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 下代期 장보고의 活動期에 해당하는 진골왕족의 친족집단이 가지는 정치세력의 모순을 파악하여 骨品制의 성격을 이해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골품귀족으로 武列系 金周元의 후손 이면서도 奈勿系인 金祐徵의 세력에 합류한 金陽의 실체를 확인하면서 張保臯의 청해진 몰락 요인을 정리해 갈 것이다.

## II. 新羅下代の 政治構造

일반적으로 新羅下代는 中央集權的인 귀족국가인 解體期로 파악되고 있다.

張保臯이는 惠恭王 이후 중앙정치 세력의 쇠퇴와 골품귀족의 독자적인 私兵 소유로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한 왕위계승 쟁탈전에 기인되었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신라하대기의 전반적 양상을 考察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張保臯와 신라 중앙정치권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神武王과 文聖王代에 이르는 정치과정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惠恭王(765-780)대에 일어난 6차례에 걸친 귀족들의 亂은 武烈系의 전제왕권에 대한 奈勿系 진골 연합세력의 저항운동으로서 上大等 金良相이 혜공왕을 살해하고 宣德王으로 즉위하여 신라하대가 시작된다.

선덕왕은 奈勿王의 10대손이며 선덕왕의 뒤를 이어 上大等 金敬信<sup>3)</sup>이 즉위하니 元聖王(785-758)이다. 이 元聖王<sup>4)</sup>의 즉위로부터 신라하대의 양상이 확대되어진다고 본다.<sup>5)</sup> 삼국사기에 보면 선덕왕이 無子인 채로 薨去하자 군신들은 上帝였던 金

- 2) 尹炳喜, 「新羅下代 均貞系의 王位繼承과 金陽」 『歷史學報』 96, 1982  
金光洙, 「張保臯의 政治史의 位置」 『張保臯의 新研究』 1985  
浦生京子 「新羅末期 張保臯의 擡頭와 反亂」 『朝鮮史 研究會 論文集』 16, 1979
- 3) 李基白, 「上大等考」 『新羅政治社會史研究』 1974, PP, 122  
新羅下代의 上大等은 대개 王位를 繼承하는 傾向이 있다고 하였다.
- 4) 「三國史記」 新羅本紀 10, 元聖王 條  
「及宣德薨 無子 羣臣議後 欲立王之族子周元 周元宅於京北二十里 會大雨 閔川水漲 周元不得 渡 ... 今上大等 敬信 前王之弟...立之繼位」
- 5) 李基白, 「新羅 政治 社會史研究」 1974. PP.229-237  
李基東, 「新羅下代의 王位繼承과 政治過程」 『歷史學報』 85, 1980 PP.4

周元(무열계)을 왕으로 옹립하려 했지만 폭우가 내려 閼川이 범람하여 金周元이 왕궁에 올 수 없어 김경신을 추대하였다고 한다. 상급자인 김주원은 태종 武列王 6세손이며 憲恭王때 시중으로서 金敬信 보다 상급자인데도 이를 배제한데는 일종의 암투가 있었을 것이다.<sup>6)</sup>

후일 김주원의 아들 金憲昌, 손자 金梵文이 반란을 일으킨 것을 본다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원성왕은 내물왕의 12손으로 金良相(선덕왕)의 혜공왕 제거에 군사를 일으켜 참여하여 平亂의 공을 세워 선덕왕 대에 上大等으로 활동하였다. 신라하대는 元聖王代부터 권력구조의 양상인 王室親族集團에 의해 권력이 집중되는 정치구조가 확립되어졌던 시기로 파악된다.<sup>7)</sup>

三國史記에 나타나는 친족집단의 왕위쟁탈 양상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sup>8)</sup>

998년 원성왕 死後 태자 俊嵬이 즉위하여 昭聖王이 되었으나 1년만에 薨去하고 태자 淸明이 13세에 즉위하니 이가 哀莊王이다. 이 때는 숙부인 角干 彦昇의 섭정기였다. 金彦昇은 결국 809년 亂을 일으켜 왕을 시해하고 즉위하니 憲德王이다. 이와 같은 왕위 쟁탈전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신라 하대의 사회현상은 만성적인 식량기근과 草賊이 봉기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다. 내물계 친족집단의 왕위 쟁탈전은 憲德王 822년에 발생한 金憲昌의 난을 볼 때 武列系인 周元系에 대하여 연합 세력화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三國史記 헌덕왕 14年條에서 김헌창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元聖王系의 忠恭, 均貞, 悌濼, 祐徽등의 활약을 통해 金周元계에 적극 대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sup>9)</sup>

이는 下代 내물계의 친족집단의 형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金憲昌의 난후 원성왕계를 중심으로 내

부분열과 마찰의 심화가 나타나고 있다. 826년 憲德王 사후 同母弟로서 副君자리에 있던 金秀宗이 즉위하니 興德王이다. 장보고의 청해진 設鎮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곧 흥덕왕 대이다. 신라하대의 정치구조는 武列系였던 周元系의 몰락 이후 원성왕계 친족집단에 의한 왕위쟁탈전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 같다. 38대 원성왕계는 그의 후손인 仁謙系와 禮英系라는 두 개의 친족집단의 분류를 통해 상호분열, 대립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왕위란 한 家系에서 血緣상 왕과 가까운 후손에게 계승되었으며 원성왕 이후 首相 職인 上大等은 대개 왕위를 계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sup>10)</sup> 이와 같은 왕위계승 절차에 준해서 본다면 원성왕 가계의 인겸의 후손 6명이 모두 侍中을 역임하였고 上大等과 왕위는 仁謙系에서 독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원성왕 이후 39대에서 44대(昭聖王-閔哀王)까지 인겸계가 왕위를 이어갔다. 흥덕왕 이후 禮英系의 후손인 憲貞系와 均貞系의 분립과 대결로 왕위쟁탈전이 심화되었고 이 왕위쟁탈전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군사력의 행방이라 본다. 여기서 장보고의 청해진이 가진 군사력은 자연스럽게 정치권의 왕위쟁탈전과 연결될 수밖에 없었음은 기정적인 사실이다.

### III. 骨品貴族의 實態와 私兵組織

골품귀족은 왕족 즉 眞骨貴族으로 본다면 신라 하대 奈勿系의 왕통이 확립되면서 진골귀족의 族的 기반의 확대와 그 양적인 증가의 경향은 촉진되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왕의 자손이면 세대수에 관계없이 진골귀족의 身分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진골귀족의 확산은 近親王族 이라 해도 官界진출에 있어 일정한 제약은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상호간의 권력투쟁을 가져오게 하였던 요인이 되고 있었다.

6) 李基東, 「前揭論文」 PP,7

7) 李基東, 「前揭論文」 PP, 9

8) 『三國史記』 新羅本紀 10, 昭聖王, 哀莊王, 憲德王條

9) 『三國史記』 新羅本紀, 10 憲德王 14年條

10) 注 3과 同

신라하대에 들어와 왕실은 血族관념에 의하여 좁은 범위의 階層만이 정치적 사회적 활동에 있어 하나의 단위가 되고 있다. 즉 元聖王 이후 직계 상속을 중심으로 직계와 방계의 차이가 강조되었고 이는 상호 왕위계승을 위한 쟁탈전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血族集團의 相互對立과는 별도로 진골 귀족의 만능이라는 골품제 사회의 권력구조는 대체로 고수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진골 귀족들은 綠邑, 食邑을 통하여 土地와 百姓의 분할 소유와 함께 奴隸勞動에 기초를 둔 大土地 소유자로 발전해 갔다. 이러한 골품귀족들은 내부적으로 분열 대립하게 되고 이에 따라 나타나는 상호 항쟁에 대비되어지는 私兵의 소유는 불가피했을 것이다.<sup>11)</sup>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는 자료는 新唐書 新羅傳에 「재상가는 綠이 끊이지 않고 노동이 三千人 이요, 甲兵과 牛, 馬, 猪 가 이와 상등하였다」<sup>12)</sup> 라고 한 내용은 골품귀족들의 사병소유를 알려주는 중요한 내용이 되고 있다. 여기서 宰相家は 일반적으로 골품귀족을 지칭하는 것이며 3천의 奴婢와 같은 수의 兵器는 언제든지 무장한 군대로서 동원시킬 수 있었음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골품귀족들의 私兵소유를 조장하고 가능하게 한 것은 신라 兵制의 붕괴(징병제도)와 이에 따르는 군사력에 의한 국가통제의 해이였다.<sup>13)</sup>

下代에 있어 왕위쟁탈전과 관계된 軍隊의 성격

은 골품귀족들의 私兵임을 확인할 수 있다. 혜공왕대 진골귀족들인 96각간의 대립항쟁 기사<sup>14)</sup> 골품귀족들의 사병조직에 의한 것임은 의심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골품귀족들의 사병조직은 중앙의 왕위계승 쟁탈전에 나타나는 군사활동과 관련되어 있다. 822년의 金憲昌의 叛亂,<sup>15)</sup>과 김범문의 반란도 그들이 소유한 私兵에 의해서 이고 흥덕왕 사후 憲貞系와 均貞系의 대립에서 金明이 거느린 사병조직으로서 憲貞系의 悌隆(희강왕)을 왕으로 옹립하였다.<sup>16)</sup> 이 대립에서 均貞이 죽고 均貞의 아들 祐徵은 잔병을 수습하여 淸海鎭의 장보고에게 의탁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金陽은 謀士와 병졸을 모집하여 청해진으로 와 祐徵과 합류했다.<sup>17)</sup>

여기서 우징과 김양이 均貞의 즉위를 위해 항쟁 하였던 군사도 그들의 私兵이었고 金陽이 사병을 모아 청해진으로 왔다고 했을 때 金陽이 모집한 군사도 私兵이었다. 그러면 여기서 청해진의 장보고가 가진 군사조직의 성격은 무엇이었을까. 三國史記 흥덕왕 3年條에 장보고의 귀국과 왕의 배알, 군사 1만으로 청해진을 설치<sup>18)</sup> 하였다는 기록을 통해 확인해보면 특수한 구조의 사병조직을 가지고 신라정부로부터 반독립적인 위치에서 독자적인 鎭을 설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보고의 사병조직은 재당 활동시의 재당 신라인과 또한 청해진 주변지역의 민중을 규합하여 이루어진 일종의 민

11) 李基白, 「新羅 私兵考」, 「歷史學報」 9, 1957, PP.39

12) 「新唐書」 卷219, 列傳144, 北狄

「宰相家不絕祿 奴僮三千人 甲兵牛馬猪稱之 畜牧海中 山須食乃射 息穀米於人 僕不滿 庸爲奴婢」

13) 李基白, 「前揭書」 PP.181

「新羅下代の 始作은 元聖王의 諸孫을 始祖로 하는 獨立된 家系들이 하나의 政治的 社會的 單位로서 機能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4) 「三國遺事」 卷2, 惠恭王條

「大恭角干賊起 王都及五道 州郡並九十六角干 相戰大亂」

15) 「三國史記」 卷10, 憲德王14年條

「熊川州都督 憲昌以父周元 不得爲王 反亂」

16) 「三國史記」 卷10, 僖康王 1年條

「初興德王之薨也 其堂弟均貞 堂弟之子悌隆皆欲爲君 於是 侍中金明 阿湊利弘裴萱伯等奉悌隆 阿湊祐徵與姪禮徵 及金陽奉其父均貞 一時入內相戰 ... 而後悌隆乃得即位」

17) 「三國史記」 卷10 僖康王 1年條

18) 「三國史記」 卷10, 興德王 3年 正月條

군 조직일 것이다.

이는 삼국사기 文聖王조에 장보고가 將士를 사랑했다는<sup>19)</sup> 내용을 통해 보면 私兵의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라하대 골품귀족의 실태를 정리해보면 진골귀족의 확대와 양적인 팽창에 따라 중앙으로 진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고 따라서 그들은 金入宅 사절 유대와 목장들을 소유하고 사병을 양성하여 그들의 지위를 지키고 있었다고 보겠다.<sup>20)</sup>

#### IV. 張保臯의 淸海鎮 勢力과 金陽

張保臯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가면서 뚜렷하게 정립되어지는 장보고의 실상은 단순한 商人 출신이 아니라 강력한 군대와 해상권을 장악한 군인이며 아시아 지역의 해상 무역을 장악한 貿易王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볼 때 국내에서의 海外活動基地인 청해진은 단순한 貿易港口가 아닌 군사기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진다. 이와 같은 주장은 新羅와 唐의 접합부분에서 新羅로부터 이탈한 新羅인들(신라방, 신라소)을 결속하므로써 그 세력을 형성했다는 기존의 연구성과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sup>21)</sup> 장보고의 청해진 세력은 興德王代에 淸海鎮大使로 임명되면서 시작되어진다. 여기서 大使라는 職名을 통해서 청해진의 성격을 파악해보면 唐 制度에 나타나는 藩鎮의 절도사의 경우 대

使로 호칭하고 있음을 보면 大使라는 직함은 그와 같은 성격으로 파악되어 질 수 있다.<sup>22)</sup> 이렇게 볼 때 대사란 특별한 권한을 대행하는 통칭이며 단순한 관료적 직명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보고의 청해진 세력은 신라의 기존 지배체제의 외곽에서 정치적으로 독자성을 가지는 변진의 형태로 존재했던 것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sup>23)</sup>

이는 三國史記의 내용중 「感義軍使 食實封二千戶」라는 기사를 통해서 정치적 독립성을 가진 分封의 의미로 받아들여진다.<sup>24)</sup> 기연구들에서 밝혀진바 있는 장보고의 실체는 在唐時, 서주절도사 무령군의 소장이었다는 점과 적산포를 중심으로 하는 일대의 해상세력을 장악하여 富를 축적하였고 귀국하여 청해진을 중심으로 서남해안지역의 주민들을 흡수하여 양 지역(당, 신라)의 지역적 성격과 거주신라인의 특수성을 합쳐 그 세력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sup>25)</sup>

장보고 집단의 인물들이 대부분 중국식 姓氏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면 신라골품제와는 거리가 먼 개체성을 전제로 한 인간관계로 결합되어 있다고 하겠다.<sup>26)</sup> 이와 같이 장보고의 청해진 세력은 신라하대 사회에서 확산되고 있었던 골품귀족들의 私兵조직보다 더욱 組織的이며 확대된 군사조직을 소유하고 있었다. 三國史記 僖康王 3年條<sup>27)</sup>에 均貞系의 祐徵이 왕위쟁탈전에서 패한 후 처자까지 거느리고 金明의 화를 피해 청해진의 장보고에게

19) 『三國史記』卷11, 文聖王, 8年條

20) 『三國遺事』卷1, 辰韓條

「新羅全盛之時 ... 三十五金入宅富潤大家」

21) 金庠基, 「古代的 貿易形態와 羅末의 海上發展에 대하여」 『震壇學報』1,2, 1934 PP,103,107

22) 浦生京子 「前掲論文」 PP,52

23) 金光洙, 「張保臯의 政治史의 位置」 『張保臯의 新研究』 莞島文化院 1985, PP,76

24) 『三國史記』新羅本紀 10 神武王條

「封淸海鎮大使弓福爲感義軍使 食實封二千戶」

25) 李永澤, 「張保臯의 海上勢力에 관한 考察」 『韓國海洋大學校 論文集』17, 1982

李基東, 「新羅下代의 王位繼承과 政治過程」 『歷史學報』85, 1980

崔在錫, 「張保臯와 그의 政治軍士集團 研究의 基本視覺」 『海洋經營史研究』1993

金文經 「張保臯 海上王國의 사람들」 『海洋經營史研究』1993

26) 金光洙, 「前掲論文」 PP, 75

27) 『三國史記』新羅本紀, 卷10, 僖康王 3年條

「金陽募集兵士 入淸海鎮謁祐徵 阿浚祐徵在淸海鎮」

의탁했고 곧이어 金陽까지 청해진으로 왔다는 기록을 접할 수가 있다. 물론 興德王代 장보고의 청해진 設鎮時 祐徵은 侍中이었고 金陽은 武州都督이었기에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청해진의 실태가 단순한 무역항이었다면 중앙집권 세력들의 피신은 생각될 수 없을 것이다.

이들 중앙 정치세력의 청해진 피신은 장보고의 거대한 사병조직을 통한 要塞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장보고는 본격적으로 中央政治權과의 연결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또한 장보고의 중앙정치권과의 연결은 淸海鎮沒落과 관련되어지는 사실이다.

청해진의 몰락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 金陽의 신분과 행적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金陽의 字는 魏昕이며 太宗武列王 9대손 이다. 즉 金陽은 武列王系 金周元의 曾孫이다. 선덕왕 사후 무열계 직계인 김주원이 王位繼承자였지만 당시 上大等 이었던 金敬信(원성왕)에게 밀려 溟州 地方으로 퇴거하였다.<sup>28)</sup> 그러나 金周元系의 後孫들은 周元의 아들 宗基, 憲昌, 金陽, 金昕은 중앙에서 侍中, 地方都督 등을 역임하고 있었다. 周元系의 金憲昌, 金梵文의 反亂 전까지는 周元系가 일정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헌창 부자의 반란 후 興德王代에 들어서면 金周元의 曾孫인 金陽은 武州都督, 金昕은, 伊淥, 相國을 역임하고 있다. 흥덕왕 사후 왕위쟁탈전에서 金陽은 均貞系, 金昕은 金明系에 가담하여 서로 대립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김헌창 부자의 난후 김주원계는 원성왕계안의 독립된 가계로 분산 흡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金明의 세력이 균정을 죽이고 헌정의 아들인 悌隆을 즉위시키니 僖康王이다. 이때 均貞의 아들 祐徵은 청해진의 장보고에게 귀의했고 뒤이어 김양도 합류하게 된다. 결

국 김양은 장보고와 연합하여 僖康王을 죽이고 閔哀王이 되었던 金明을 죽인후 祐徵을 등극시키니 神武王이다. 신무왕은 즉위한지 반년만에 薨去하니 곧이어 태자 慶膺이 계승하여 文聖王이 되었다. 문성왕은 장보고를 鎮海將軍으로 봉하고 金陽에게는 蘇判 兼, 兵部令을 주었다. (이 관직은 중앙 관계의 3위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金陽이 均貞系 祐徵의 왕권 획득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은 武列系였던 김양 자신의 실지 회복을 위한 과정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은 양상은우정의 등극과정에서 김양은 장보고의 부하로 활약되어 졌으며 장보고의 역할이 매우 컸는데도 장보고에게 취해진 대우는 철저히 중앙정계의 진출을 막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김양과 장보고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대립관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청해진 몰락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일련의 문제는 모두 金陽과 관련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 V. 張保臯의 淸海鎮 沒落

장보고의 청해진 몰락과 관련된 기본적 사료는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이다.

이 기본사료에 나타나는 청해진 몰락의 원인은 納妃문제와 관련하여 장보고가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그 세력을 우려한 끝에 閻長을 통하여 암살케 했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금까지 장보고에 대한 일반적 견해는 반역자로서 그의 생애를 평가했으며 기본사료의 기록은 지금까지 별다른 연구 과정 없이 놓여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의 학자들도 큰 관심 없이 기본사료를 활용하고 있다.<sup>29)</sup> 그러나 장보고의 청해진몰락과 관련하여 일찍 일본의 蒲生京子씨는 기본사료를 벗어나 많은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sup>30)</sup>

28) 「三國遺事」元聖大王條  
「周元退居溟州」

29) 王杰 「An Examination of boat form between the chuan of Tang dynasty and Zhang Baogao,s Trader」  
1997, 韓國航海學會 세미나 發表資料

뒤이어 국내학자 李基東, 金光洙, 尹炳喜 교수들에 의하여 청해진 몰락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sup>31)</sup> 우선 장보고의 청해진 몰락 문제와 관련하여 나타난 納妃 문제는 장보고의 청해진 몰락에 최후로 선택된 상황이었다.

앞에서 살핀바와 같이 장보고의 청해진 설진 시기는 신라하대 구조의 혼돈 속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822년 武列系의 金憲昌의 반란, 金梵文의 난은 하대사회의 성격을 나타내준 것이라 하였다. 이는 골품진골 귀족들이 소유한 사병조직의 확대를 단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이와 같이 신라 下代期の 무열계와 내물계의 대립에서 김현창 부자의 난이 소멸되었어도 그와 형제간인 金宗基 系는 계속 건재하였고 그 孫子인 金陽, 金昕도 骨品貴族이 소유한 정치, 경제권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었다. 이는 흥덕왕 사후 奈勿系 친족집단의 대립에서 金陽이 均貞系, 金昕이 憲貞系에 가담하면서 골품귀족들이 누리 수 있는 신분을 균등하게 소유할 수 있었다. 元聖王의 후손 仁謙系의 忠恭의 子 金明의 반란에 의해 憲貞系 悌隆이 僖康王이 된후 金陽은 산야에 숨었다. 우징이 장보고의 청해진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군사를 모아 장보고의 청해진에 합류하였다. 물론 장보고의 군사력과 鄭年, 閻長, 金陽 등의 활동으로 우징이 즉위하여 神武王이 되었다. 신무왕이 즉위한지 반년만에 죽자 太子慶膺이 계승하니 文聖王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볼 때 현창 부자의 난후 金陽은 권력구조 속에서 소외되고있었던 자신의 실지를 회복하려던 뜻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김양에게 있어 장보고의 청해진 해상세력은 그의 정치 세력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이는

장보고의 납비 문제에서 장보고가 海島人이라 극력 반대한 것도 김양 이었다는 것은 쉽게 유추가 가능하다.

또 그 시기 만약의 납비 문제가 성사된다면 강력한 해상세력을 통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그의 존재는 중앙귀족들에게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을 안겨주고 있었다. 이러한 정황은 三國史記에 金陽과 관련된 기사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다. 우선 삼국사기 문성왕 8년조의 기록에서 볼 수 있는 장보고의 死亡時期가 846년으로 되어있다는 점과 續日本後記 승화 9년조의 기록은 841년으로 되어있다. 이는 원인일기와 그 시기의 상황을 볼 때, 841년에 사망하였음이 맞는 것 같다.<sup>32)</sup>

장보고가 841 암살된 뒤 바로 金陽의 딸이 文聖王의 次妃가 되고 있음을 통해 김양의 야심은 명백해진다.<sup>33)</sup>

이 사실을 통해서 보면 김양의 야심은 장보고의 제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장보고를 암살한 閻長에 관하여 확인해보면 김양의 야심은 명백해진다. 閻장은 일찍 김양이 武州 都督을 역임할 때 武州地方人이며 神武王 翁립 시에 중심장수로서 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閻장은 무주지방의 豪族勢力이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이와 같이 三國史記의 기록에 나타난 장보고의 청해진 몰락은 김양을 중심으로 한 보수적 중앙귀족과 지방호족의 연결 속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장보고의 중앙정계 진출에 대해 직접적인 위기의식을 느낀 中央骨品貴族의 역할 일 것이다.

日本の 浦生京子は 「신무왕 즉위에 공로자였던

30) 浦生京子, 「前掲論文」 PP,65

31) 李基東 「前掲論文」, 尹炳喜, 「前掲論文」, 金光洙, 「前掲論文」

32) 濱田耕策, 「新羅王權과 海上勢力」 「唐代史 研究會報告」 8輯 1999, PP,458-459

浦生京子, 「前掲論文」 PP,66

尹炳喜, 「前掲論文」 PP,71

李基東 「前掲論文」 PP,25

위 研究者들은 張保臯의 死亡年代를 841年으로 주장하고 있다.

33) 「三國史記」 新羅本紀 11 文聖王 4年條

「四年春三月.. 納伊漚魏昕之女爲妃」

장보고에 대해 그 처우가 특별하지 않아 그 지위가 불안정하여 그의 딸을 왕비로 들여 외척의 지위를 획득하려는 최대의 야망을 가지고 있었다고」<sup>34)</sup> 했지만, 이러한 견해는 적합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장보고가 神武王 翁臨에 참여한 것은 納妃를 통해 영달을 꾀하려는 것이 아니라 藩鎮 세력으로서 新羅조정과 同格의 위치를 가지고자 한 것으로 파악된다. 장보고는 骨品貴族을 고수하고 있는 신라왕 조와 공존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외척으로서 중앙정계의 진출을 꾀한 것은 아니다.

또한 일본의 日野開三郎<sup>35)</sup>은 장보고 암살의 배경에는 노비매매 해금을 위한 해상세력들의 음모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노비 문제 뿐 아니라 교역활동에 있어 지배적 입장에 있던 장보고에 반발하는 지방세력의 역할도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일리가 있다.

장보고의 청해진 몰락에 대해 「三國史記」 「三國遺事」의 기록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몇 가지 요인을 찾아낼 수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신라하대의 정치구조와 관련된 골품귀족사회의 특성 속에서 장보고의 해상 군사세력이 정립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하대 사회의 특성은 왕족들의 친족집단에 의한 왕위쟁탈전이다.

중앙정계진출의 야심을 가진 골품귀족과 또는 지방의 호족들과 관련되어진 골품귀족들 사이에 놓여진 장보고의 실체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존재였음은 분명할 것이다. 특히 신라하대에서 소멸된 武列系 후손인 金陽의 野心은 골품귀족사회가 공통으로 장보고에 대한 적대적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간파하고 閻長을 통해 암살하기에 이른 것이다. 기본적 사료(史記, 遺事) 어디를 보아도 장보고가 군사를 일으켰다는 기록은 없다. 그리고 사기의 기록

과 유사의 기록은 서로 차이점을 가진다. 사기의 기록은 「난을 일으켰다」<sup>36)</sup>이며 유사의 기록은 「난을 일으키려고 하였다」<sup>37)</sup>라고 저술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중앙정부에서는 납비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장보고가 난을 일으킬 가능성은 충분할 것이다, 라는 추정 아래서 金陽의 역할과 閻長의 활동이 나타난 것이다. 이는 장보고 사후 閻長이 청해진을 관장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 VI. 맺음말

장보고의 청해진 몰락요인은 삼국사기의 기록과 같이 납비 문제로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장보고는 암살되었고 청해진이 몰락되었다는 사실은 많은 문제가 있다. 물론 역사적 사실 즉 文聖왕이 장보고를 죽이겠다는 閻長의 이야기를 수락했고 閻長이 장보고를 암살했다는 기록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본적 사료를 통해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째 기록의 어느 부분에도 장보고의 반란 즉 군대의 이동 또는 반란의 준비등에 관한 기사는 발견할 수 없다.

이는 장보고의 암살과 청해진의 몰락은 納妃문제를 활용한 골품귀족들의 음모에 의한 것임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둘째, 祐徵을 도와 神武王으로 즉위시킬 때 장보고와 함께 청해진에서 활동했던 金陽과 閻長은 장보고의 해상세력이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음을 보았다.

여기서 金陽은 神武王, 文聖王 代를 이어 장보고에게 공로를 인정한 작위(感義軍使, 鎮海將軍)를 주고 있다는 사실과 장보고 세력의 방대함에 대해 자신의 위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또 閻長은 武州地域 豪族勢力으로서 장보고의 청

34) 浦生京子, 「前掲論文」 PP,64

35) 日野開三郎, 「羅末三國의 鼎立과 大陸 海上 交通貿易」 『朝鮮學報』 20, 1960, PP,103

36) 「三國史記」 新羅本紀 11, 文聖王 8年條  
「清海弓福怨王不納女 據鎮叛」

37) 「三國遺事」 神武大王 閻長 弓巴條  
「上以 其女爲妃則不可 王從之 時巴在清海鎮爲軍戊 怨王之違言 欲謀亂」



해진이 가지고있는 해상 무역권을 소유하고 싶어 했을 것이다. 이는 장보고와 직접 관련된 김양과 영장의 경우이지만 그 시대 중앙골품 귀족이나 지방호족, 특히 장보고의 청해진 설진 이전의 해상세력들의 공통된 의식이 작용했을 것이다. 셋째, 장

보고의 납비 문제는 신라의 골품제 진입을 통해 세력의 확대를 피하였다는 기 연구(浦生京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장보고의 청해진 세력은 瀋鎭으로서 신라왕과 동등한 입장에서 納妃 문제를 요구하였다는 측면에서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